

'익산 수소충전소' 구축

2공단준공식 수소 승용차 1일·50대 충전 가능 7월 1일 정식 상업운전 예정·충전 여건 개선

익산에 도내 공공기관 1호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시는 25일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하

며 수소에너지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준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준공된 수소충전소는 도내 공공기관 1호 수소충전소로, 석암동 389-75번지 일원에 사업비 총 30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1천95㎡·건축면적 206㎡ 규모로 구축됐다.

충전시설 250kg/일 용량으로 수소승용차 1일·50대가 충전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상업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충전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충전소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소차 운전자들이 타지역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고충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현재 등록된 수소 차량 113대에 이어 올해 127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410대를 보급해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내년에는 지역의 수소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역에 수소 버스 충전소를 추가 설치해 수소 승용차 충전은 물론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가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71주년 6.25전쟁 기념 및 보훈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제71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

익산시, 60여명 참석 표창·감사패 증정·보훈회관 개관식 개최

익산시가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71주년 6.25전쟁 기념 및 보훈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익산시 보훈회관에서 개최됐으며, 6.25전쟁 제71주년을 기념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전북서부보훈지청장·경찰서장, 보훈단체장·회원 등 60여명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을 축하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선정해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훈단체에서는 오래된 보훈회관을 재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 박준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노력 위에 지금의 평화가 이뤄졌기에 그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보훈회관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회관을 신축해 지난 2월부터 9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국립 금강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총력

수요·경제적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 구성 등 방안 제시

익산시가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금강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목표로 마비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오택립 부시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금강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센터 건립에 대한 수요·육구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보고되며 프로그램 구성·공간구상 운영관리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재)전북연구원은 전북·충남·전남·광주 지역 주민 총 700명을 대상으로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88.6%가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10으로, 센터 건립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건립 기간 동안 총 354억7천8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49억6000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4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

이어 운영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32억3천5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7억5천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전국 상위권의 심리정서문제와 도박중독, 가출 등의 비행·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기존 설립된 시설(경기 용인) 및 운영 예정인 시설(대구)의 이용권을 고

려할 때 전라권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이용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전라권 지역에서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10~18세)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치료·재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익산시에 국립형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통합·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택립 부시장은 "익산시는 한약 차치유, 원예치유, 동물교감치유 등 지역 자원 연계 특화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며 "따라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자원에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므로 국립 금강 청소년디딤센터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 고용위기 지원센터, 'YH에너지' 채용연계 직업훈련생 모집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실직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태양광, 소풍력 발전설비 시공실무 과정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기능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새만금 국가1차에 신규 입주기업인 와이에이치에너지(주)와 (주)현대지브이에너지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수요맞춤형 과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해 교육 수요 시 해당 기업에 채용연계로 진행된다.

와이에이치에너지(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2공구)내 4만㎡ 용지에 103억원을 들여 190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기, 소형 풍력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공장을 준공 중으로 하반기 인력채용 수요에 맞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태양광, 소풍력

발전설비 시공실무과정(모집인원:20명, 훈련기간:7.7~8.31, 40일),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기능인력 양성과정(모집인원:20명, 훈련기간:7.7~8.31, 40일)은 셔틀버스 운영 및 증식지원 등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두 개의 훈련과정은 오는 7월 1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상담전화(☎450-1322)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수도권·충청지역 A형간염 환자 급증 주의 당부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A형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A형간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전국 1만7,598건까지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한 바 있다.

조개젓 섭취경감을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감했으나 지난 3월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A형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세가 다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A형간염의 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해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조개젓 구입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확인 후 구입, 조개류 충분히 익혀 먹기)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에 대한 시민 홍보와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적극 추진을 통해 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상은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황달, 복부 불쾌감,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A형 간염의 치료는 특이적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대증요법으로 대부분 회복되나 치사율이 0.1~0.3%인 만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간부전과 같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12~23개월의 모든 소아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